

“황금알 낳는 크루즈 관광객 잡아라”

여수·광양, 특산물 판매장터 개설·해설사 배치·셔틀버스 지원 ... 유치 경쟁 치열

여수, 광양 등 전남 동부연안 지자체들이 크루즈 관광객 유치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크루즈 관광객들이 소비성향이 강해 지역경제에 상당한 도움이 되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27일 여수시에 따르면 올 상반기 국제 크루즈여행선의 여수 입항 횟수는 7차례로 지금까지 1만7460명의 여행객이 여수에 발을 디딘 것으로 파악됐다.

지난 3월29일 이탈리아 코스타크로시에서의 ‘코스타 빅토리아호’가 승객 2300명을 태우고 입항한 것을 시작으로, 홍콩 스타크루즈사의 ‘슈퍼스타 제미니호’가 지난 4월부터 이달 19일까지 총 6번 방문한 것으로 나

여수

올 7회 1만7460명 방문

하반기에도 6차례 예정

광양

29일 14만급 첫 입항

순천 정월박람회와 연계

타났다.

올 하반기에도 6차례에 걸쳐 1만3350명의 크루즈여행객이 여수를 방

문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여수시에서는 크루즈 관광객 입항에 따른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기대를 걸고 크루즈관광객 맞이에 최선을 다할 방침이다.

크루즈여행선부두인 여수엑스포 국제여객선터미널에 지역 특산물 판매장터를 운영해 다양한 지역 특산물을 진열할 방침이다. 또 관광홍보물을 배부하고 중국어 전문 관광해설사를 배치하는 것은 물론 크루즈터미널에서 오동도와 이순신광장, 진남관 등을 오가는 셔틀버스를 지원하기로 했다.

광양항에는 오는 29일 지역 최초로 4000여명이 승선한 14만급 대형

크루즈선 로얄캐리비안호가 입항한다.

이번 크루즈선은 중국 상해를 출항해 29일 새벽 6시 광양항 3-2단계 일반부두에 입항, 30일 밤 10시에 출항할 예정이다. 이 기간 동안 관광객들은 버스 100여대를 이용, 순천정월박람회장을 비롯한 전남, 부산 등 남해안권 관광지를 방문하고 특산물 등의 쇼핑을 즐기게 된다.

이에 따라 광양시는 대형크루즈 입항을 축하하는 환영식을 개최하고 특산물 판매장 5개 부스를 운영하기로 했다.

/광양=박영진기자 pyj4079@ /여수=김창희기자 chkim@

국제정월박람회장

7월3일 영암군의 날

문화 공연 등 다채

영암군은 오는 7월3일 ‘순천만 국제정월박람회’에서 영암의 특색있는 문화예술과 관광자원 홍보를 위해 ‘영암군 문화의날’ 행사를 개최한다.

27일 영암군에 따르면 ‘영암군 문화의 날’ 행사는 난타 및 25현 악기로 연주하는 파플러 음악 등을 식전행사로 꾸미고 가야금 산조와 팔도 민요 등을 주행사로 마련하는 등 영암만의 수준 높은 전통문화를 관람객들에게 선보여 영암문화 이미지를 드높일 예정이다.

또 박람회장 주변에 농·특산물을 전시해 품질 좋고 저렴한 영암의 먹거리를 체험하게 함으로써 관람객들의 오감을 만족시킬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2013 순천만 국제정월박람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기원하고, 오는 7월6일에 개최하는 ‘월출산 기차랜드’의 홍보효과를 높이기 위해 영암군 문화의 날 행사 준비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영암=대성수기자 dss@



김길용(왼쪽에서 두번째) 전남대 농업생명과학대학 교수와 안기철·송방교 씨(왼쪽부터)가 지난 26일 오후 나주 남평 대피수확현장에서 키틴농법에 대해 얘기를 나누고 있다.

전남대 교수·나주 농민 손잡고 ‘멘토·멘티’ 키틴농법 성과

上品 대과 1.5배 더 수확 ‘웃음꽃’

친환경 급식용 전량 납품도

“대과일을 갇아 먹는 총채벌레나 파과과리가 전혀 발생하지 않아 상품(上品)이 생산됐어요. 올해 800평에서 예상보다 1.5배 많은 15t의 대과를 수확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난 26일 찾은 나주시 남평읍 우산리 차산마을 들녘.

귀농 2년차 농부인 안기철(45)씨는 현장을 찾은 ‘멘토’ 김길용(53) 전남대 농업생명과학대학 교수에게 막 수확한 대과를 보이며 설명했다.

안씨는 지난해 귀농해 당근 무농약 재배에 나섰다가 실패해 갈아엎은 후 올해는 대과 친환경 재배를 시도

했다. 3월초 씨를 뿌린 후 지난 20일 첫 수확에 들어간 대과 재배결과가 성공적이었다. 수확한 대과는 남평농협과 계약재배해 친환경 급식용으로 전량 납품한다.

대학 연구소가 지역 농업인과 손잡고 지역 영농현장의 애로를 해결하는 ‘멘토’와 ‘멘티’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올해 안씨 농사의 비결은 ‘키틴·펠라틴’ 분해 미생물 농법(이하 키틴 농법)(광주일보 2012년 3월 7일 18면)이었다.

지난해 첫 농사에서 쓴맛을 본 안씨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동네 귀농선배인 송방교(56)씨와 함께 전남대 친환경 농업연구소(소장 김영철

식물생명공학부 교수) 문을 두드렸다. 마침 연구소는 3월부터 6개월 과정의 ‘친환경 유기농 농업 전문가 교육’을 실시하고 있었고, 안씨 등은 곧바로 키틴·펠라틴 분해 미생물 농법을 실행에 옮겼다. 이날도 김 교수와 두 사람은 즉석에서 연작 장애 등에 대한 토론을 진지하게 이어갔다. 이날 현장에는 석·박사과정 우연 손호아(베트남), 조 웨이 나이(미얀마), 사오퐁 농(캄보디아)씨도 동행했다.

한편 전남대 친환경연구소는 농림수산식품 기술 기획평가원 지정공모 과제에 선정돼 향후 4년간 총 22억원의 연구비를 지원받았다.

/송기동기자 song@kwangju.co.kr

민선 5기 3년 성과와 과제

우주 과학 체험도시 자리매김

고흥군

지역발전의 ‘까리’라고는 전무한 상태에서 시작한 민선 4기와는 달리, 민선 5기는 그동안 뿌린 씨앗들이 어느 정도 성장한 가운데 많은 기대와 희망속에서 출범했다. 그리고 3년이 지난 현재, ‘아쉬움 속 선전’, ‘난관 속 순항’이라는 반응이 지배적이다.

100회째를 달성한 ‘해고 고흥이 동봉사단’, 군 보건소의 ‘기재개 봉사단’, 민관이 함께하는 ‘취약계층 사랑 나눔 자원봉사’ 등 군민복지 향상에는 많은 진전이 있었다.

고흥의 위상을 정립하고 군 브랜드 가치를 높이기 위한 혁신적인 의지와 다양한 노력도 돋보였다. 올 초 나로호의 성공적인 발사와 함께 국립 고흥청소년우주체험센터, 우주과학관, 천문과학관, 우주발사전망대 등 ‘우주과학 교육체험 도시’로 자리매김했으며, 거금대교와 고흥 나들목 개통, 뱀골재 위험도로 구조개선 등 접근성 향상에도 큰 성과를 냈다.

6년 만에 재개한 ‘고흥우주항공 축제’, ‘영화’라는 새로운 콘텐츠를



축으로 하고 적극적으로 시행하고 있다. 민선 4기 이전 단 한 건의 실적도 없던 기업유치는 민선 5기 동안에만 28개의 기업을 유치했고, 이 중 6개 기업이 가동 중에 있다. 포스코 패밀러 수련원은 투자제한부터 시설 개원까지 10개월 만에 모든 인허가 절차를 마무리하는 등 투자유치의 대표적인 성공사례로 꼽힌다.

지식경제부 제10차 천연가스 수급계획에 고흥군 도시가스 공급계획이 확정되기도 했다. 이에 따라 오는 2016년부터 군민들은 도시가스를 공급받게 됐다.

군민복지 향상 큰 진전

도양산단 등 속도 못내

내세운 ‘고흥 대종상단편영화제’는 이제 막 결실을 맺는 단계에서 신선한 불거리를 제공하겠다는 게 중론이다.

농림어가의 실질적인 소득향상을 위한 ‘농림수산식품산업 비전 5000 프로젝트’, 군민 의식 향상을 위한 ‘참고흥 새마을정신실천운동’ 추진을 민선 5기 군정의 양대

/고흥=주각종기자 gjju@

OCI, 전남 30개 초등학교에

5kW급 태양광발전설비 무상 설치

2년 만에 목표량 50% 달성

광양시 소재 OCI가 전남지역 30개 교에 태양광 설비를 추가 설치해 2년 만에 목표량의 50%를 달성했다.

태양광 생산업체인 OCI는 지난 26일 전남도교육청에서 장만재 전남도 교육감과 김상열 OCI 부회장 등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솔라스쿨 태양광발전설비 무상기증’에 관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협약에 따라 OCI는 전남도교육청 소속 30개 초등학교에 5kW급 태양광발전 설비를 무상으로 설치해주고, 향후 3년간 태양광발전설비의 운영과 유지보수를 지원한다.

설비 완료시 모두 교육청에 기부한다.

지난 2011년부터 시작한 ‘솔라스쿨(Solar School) 프로젝트’는 2015년까지 5년간 총 100억원을 투자해 전국 시·도 교육청과 협약을 맺고 총 300개 초등학교에 태양광발전설비를 무상으로 제공하는 그린에너지 사회공헌활동이다.

이 프로젝트는 어린 학생들에게 신재생에너지의 필요성과 효과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키고 태양광에너지의 원리와 생산과정을 직접 경험하게 함으로써 창의적인 과학인재 육성에 기여하는 취지에서 마련했다.

OCI는 전남도교육청과의 협약으

로 연말까지 160개 학교에 설치 완료 후 모두 교육청에 기증하게 된다. OCI는 2011년 7월 강화도 내가초등학교를 시작으로 최근까지 전국 110개 초등학교에 태양광발전설비를 설치해 왔다.

‘솔라스쿨’ 프로젝트가 완료되면 연간 190만 kWh의 전기가 생산돼 연간 약 1억5000만원의 실질적인 전기료 절감 효과가 기대된다.

한편 OCI는 광양제철소에서 나온 부산물을 재가공해 피치(Pitch), 카본블랙을 생산하는 광양공장을 운영하면서 지역사회에 나눔을 실천하고 있다.

/광양=박영진기자 pyj4079@

광주·전남 기능장1호 **大山 프리모 남가발**

23년간 약 1만명 시술경력 가발명가

타사제품 A/S 및 관리 환영

특수가발 별매(원터치) 완전 탈부착형 테이프 X, 핀 X

M.H.타사 신제품 가격권익가 130만원 브랜드 동급제품 **59만원**

이용기능장 원장 직접시술

매주 화요일, 휴무일요일 정상영업

본점: 광주광역시 남구 주월동 라인가든 상가2층 대표전화: 062)673-5858, 672-4622 원장 이수채 011-607-5330

NAVER 주소(D) 대신프리모

자연산 참옷을 직접달여 만든 14년 전통

참옷 보양식전문점

“고객을 먼저 생각하는 착한 가격”

참옷 음식: 토종 참옷닭 / 옷 청동오리 / 옷 삼계탕

한방 음식: 한방 백숙 / 한방 청동오리 / 춘담백숙 삼계탕

토종참옷닭 40,000원 (오리, 식사, 술 포함)

춘담 백숙 38,000원

옷의 효능: 위염, 위궤양 효과 / 과음 및 숙취해소 / 장부실 개선 및 어혈 제거/항암작용, 암세포 성장 억제 / 원기회복 속이 병하거나 손발이 찬데

함양옷닭 062)515-5757(옷칠옷칠)

광주광역시 북구 유동 9-3 해피뷰병원 뒤(구,삼성병원), 수창초교 후문 건너편